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8. 25.(화) 총 4매 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재순, 사무관 박상우, 주무관 조기환 • ☎ (044) 201-3516, 4665, 3524	
	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서혜린 • ☎ (044) 201-3938, 4643	
	외교부 남미과	담 당 자	• 과장 홍순복, 사무관 최철희 • ☎ (02) 2100-7431, 7432	
	KIND 사업개발본부	담 당 자	• 본부장 임한규, 실장 고준석, 팀장 정미영 • ☎ (02) 6746-7403, 7351, 7355	
	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	담 당 자	• 본부장 손병두, 부장 조수익, 차장 송호운 • ☎ (042) 607-3013, 3282, 3286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한-파라과이 첫 G2G 협력 교두보, “5억불 아순시온 철도” - KIND-파라과이 철도공사 간 협력 MOU 체결 -

- 사업부지 :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~ 으빠까라이
- 사업구조 : 순수 민간사업(BOT)
- 사업내용 : 약 44km 연장(역7, 차량기지1)
- 사업기간 : 건설 약 2년, 운영 30년
- 총사업비 : 약 5억 불

□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전격 방문했던 정부 민관합동대표단*이 지난 19일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(FEPASA) 간에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G2G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.

*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외교부(장관 강경화)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하 KIND),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하여 민간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

□ 파라과이 경전철은 수도 아순시온(Asuncion)과 외곽 으빠까라이(Ypacarai)를 잇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5억불 규모의 민자사업(PPP)으로,

○ 식민지시대 낡은 철도 외에는 도시철도가 전무한 아순시온 시에 도시철도를 최초로 건설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이다.

-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동 철도의 사업 구상, 금융 조달, 투자자 및 시공사 섭외 등에 대하여 파라과이 철도공사(FEPASA)와 공동 협력을 하게 되며,
 - MOU의 1단계 후속조치로 파라과이 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타당성조사(F/S)를 KIND에서 착수할 계획이다.
- 또한, 우리 측은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팀 코리아(Team Korea) 구축, 금융조달방안 확정 등 관련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,
 -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, 시공 등 본사업에 대하여도 G2G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파라과이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- 한편,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, 재무부,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금번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.
- 박재순 해외건설정책과장은 “금번 G2G 협력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의 성과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적 사례”라고 설명하면서,
 - “정부와 KIND, 공기업, 민간기업이 한마음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 G2G 협력을 하는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건설 정책과 박상우 사무관(☎044-201-46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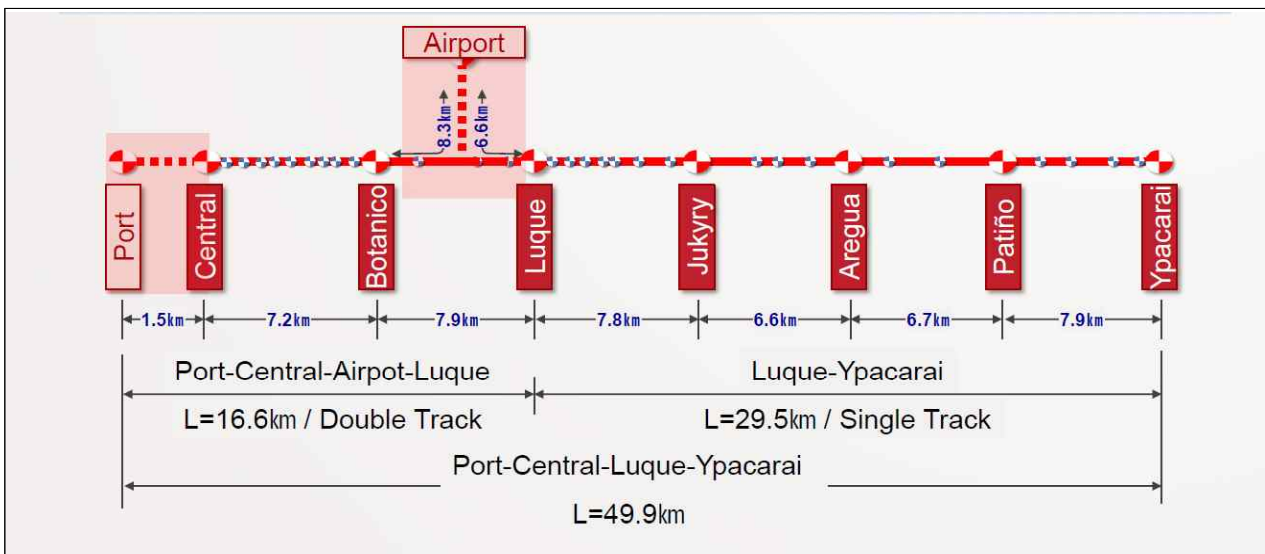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사업부지 :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~ 으빠까라이
- 사업구조 : 순수 민간사업(BOT)
- 사업내용 : 약 44km 연장(역7, 차량기지1)
- 사업기간 : 건설 약 2년, 운영 30년
- 총사업비 : 약 5억 불

□ 진행경과

- '14. 7. 철시공, 아순시온~으빠까라이 경전철 pre-FS용역 수주
- '15. 3. FS용역 준공 및 '경전철 입찰지원용역 수주'
* 입찰을 위한 2번의 PQ심사가 있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
- '19. 6. KIND,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사업재개 협의
- '19.11. 국토부수주지원단 G2G사업 추진제안
- '19.11. Team Korea 구성 협의(KIND 철시공, 현엔 및 로템)
- '20. 1.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
- '20. 5. 사업 영상제안서 제출

□ 예정노선도



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파라과이 철도공사(FEPASA)의 업무협약식(MOU)
2020.8.19.(수)

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파라과이 철도공사(FEPASA)의 업무협약식(MOU)
2020.8.19.(수)